

홍예문 옆 옛 산근정힐소(소방청사) 시민에 개방

「불·망루·소방 그리고 인천 이야기가 있는 역사의 길 조성」

- ❖ 옛 산근정힐소는 인천시 문화유산 활용정책의 네 번째 장소로 활용하고, 1907년 설치된 소방망루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방 건물 주변을 불·망루·소방 그리고 인천이야기가 있는 길로 조성

□ 제안 내용

○ 옛 산근정힐소를 시민에게 개방되는 문화유산 활용정책 4호*로 지정
 - 자유공원을 주변으로 각 방면별로 차이나타운, 개항장거리, 제물포구락부 그리고 동해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, 유일하게 동인천역 방향만 볼거리 없음.

- 1919년 신축된 산근정힐소는 인천시 재산으로 간직한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로 이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

- 긴담모퉁이집에 이어 네 번째로 산근정힐소를 역사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

※ 산근정힐소 현황

위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60 (내동 1-10)		
규 모 : 지하 1층(68.5㎡), 지상 1층(137.7㎡), 지상 2층(145.44㎡), 지하1층(68.5㎡)		
현 용도 : 중부소방서 창고		
과거(1919년 신축)	현재(1992년 개축)	미래(예시)
		
※ 역사적 가치 : 일제 강점기, 홍예문 주변의 한국인 부락을 위해 정치국 등 4명 조선인이 설치한 최초의 소방주제소		

* 인천시 문화유산 활용정책 사업 현황

제1호 : 제물포구락부(2020년 6월), 제2호 : 시민애(愛)집(2021년 7월)

제3호 : 긴담모퉁이집(2022년 5월)

○ 자연공원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소방역사의 길 조성

- 홍예문 인근에 설치된 옛 상근정힐소에서 맥아더장군 동상으로 가는 오르막길에 설치된 소방망루(화재감시탑)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임

- 두 곳의 역사적 장소를 연결하는 길을 불·망루·소방 그리고 인천 이야기가 있는 길로 조성하여 '긴담모퉁이집 가는 길' 포함시켜 여행 명소로 탈바꿈

※ 인천 최초의 소방망루 현황

위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49로 60 자유공원 내	
규 모 : 15m 철제탑	
현 용도 : 동인천동 자유공원 경보사이렌	
1907년 설치(인천부사)	2023년 현재
	
※ 역사적 가치 : 1907년 설치된 망루로 확인될 경우,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망루 임	

□ 추진 방안

○ 옛 상근정힐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

- 전시실 및 영상실 : 인천소방역사 및 안전한 인천 홍보
- 추모실 : 인천시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 조성
- 카페 :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직영방식으로 운영

○ 불·망루·사이렌 인천이야기가 있는 소방망루길 조성

- 지역 예술가(Artist-in-Residence)와 함께하는 골목 갤러리 활용
- 계단 길을 따라 불·망루·소방 그리고 인천역사 사진 전시



□ 사업효과

- 역사문화공간이 없는 자유공원 동쪽(동인천역)의 역사 공간 확충
- 역사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및 구도심 재생
- 안전한 테마의 길 조성에 따른 세계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도약
- 소방공무원 추모실 설치에 따른 숭고한 희생정신 기억